

북한에 갇힌 외국문학

차례

들어가며 | 북한에서도 외국문학을 읽는다 — 5

1. 왜 읽는가

80년대에 싹을 틔우다 — 8

외국문학을 읽어도 초점은 내부에 — 10

2. 무엇을 읽는가

『동물농장』 대신 『미국의 비극』 — 15

우리에게 생소한 세네갈 문학 — 20

3. 어떻게 읽는가

언제 어디서든 답은 정해져 있다 — 26

주인공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존재 — 29

나가며 | ‘읽는다’였는가 ‘읽어야 한다’였는가 — 32

일러두기

1. 국내에선 서구 등지의 문학을 폭넓게 가리키는 표현으로 '세계문학'이 더 흔히 쓰이고 있으나, '세계문학'은 '국민문학'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개념 이기에 '외국문학'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북한 측에서 자국 문학을 부르는 표현은 '조선문학'으로 고정하였다.
3. 북한 외국문학 번역서의 단행본 제목은 남북 간 의미가 아예 다를 경우 혹은 번역상의 이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 남한식으로 순화하였다.
4. 인명과 책명의 원어식 표기는 가독성을 높이고자 본문에 따로 적지 않았다.

북한에서도 외국문학을 읽는다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을 떠올려보자. 저자의 경우 『알프스 소녀 하이디』, 『작은 아씨들』, 『플랜더스의 개』, 『소공녀』 등을 읽으며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이 난다. 조금 더 자라서는 『삼국지연의』, 셰익스피어 작품집, 셜록 홈즈 시리즈, 그리스·로마 신화 등에 푹 빠져 지냈다. 예전에는 이들 작품이 해외에서 외국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의식조차 않고 읽었지만, 생각해보면 어릴 적 책꽂이에서 외국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특별한 이질감이나 거부감 없이 외국문학을 흔히 접하며, 우리는 문학을 매개로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수 세기 전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왔다. 『소공녀』라는 책 한 권으로 당시 영국의 소녀가 어떤 집에서 살며 어떤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화폐를 사용했는지 등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했던 식이다. 좀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땐 작가가 선택한 시대·공간적 배경과 그 묘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당 사회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인류 보편적 요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기도

했다. 외국문학은 예나 지금이나, 간접경험의 장(場)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타국 문화의 유입과 자국 문화의 유출을 철저히 제한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라 알려진 북한에서는 어떨까? 북한의 인민들도 어려서부터 외국문학을 읽고 외부 사회에 대한 간접경험을 할까? 읽는다면, 우리와 동일한 작품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읽을까? 이 서문의 제목이야말로 위의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답이 될 수 있겠다. 북한에서도 현재 많은 외국문학 작품들이 조선어로 번역·출간되어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동을 위한 세계명작동화부터 성인을 위한 세계문학전집에 이르는 다양한 책들이 인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심지어 문학이 모든 예술의 기본으로 인식¹⁾되는 사회인만큼 외국문학에 부여되는 중요성과 외국문학 읽기에 대한 권고와 강조의 정도는 남한을 훨씬 능가하기도 한다.

단, 외국문학을 수용하는 방식은 남한의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모든 작품들은 당국에 의해 천명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지닌 채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출간되고 있으며, 출간목록에는 우리에게 생소하고 읽히지 않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반대로 널리 읽히는 작품들이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다. 무엇보다도 각 작품에 대해 당에 속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석 또는 비평은 마치 작품의 일부처럼 중시되며, 이는 남한과는 또 다른 방향성과 강조점을 띠기도 한다. 여느 분야와 같이, 북한에서는 외국문학에 또한 국가의 영향력이 상당히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문화와 매체의 침투를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는 북한 사회에서 외국문학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국가에 의해 허용된 외부 세계와의 접점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북한의 외국문학 수용 양상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그중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왜’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외국문학이 북한에서도 간접경험의 장

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사회분석과 참조.

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할 것이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외국문학을 읽도록 유도하며, 독자가 외국문학을 매개로 자국 바깥세상을 바라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북한의 외국문학 수용 양상 및 인식과 관련하여 이 책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북한 문헌은 외국문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 『주체문학의 새 경지』,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 그리고 북한 내에서 출간된 외국문학 작품의 목록을 부분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는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 (1), 『세계의 이름난 작가와 일화』 (1) · (2)이다. 인용된 문학 작품 번역본의 서문과 본문은 모두 세계문학선집 단행본에 출처를 둔다. 다만 세계문학선집의 경우 출판 부수가 1만 부, 5천 부 등으로 비교적 적다(최경희 · 홍유미 2001: 4)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모든 인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한정적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책의 말미에 언급하도록 한다.

한편,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창작된 문학 및 북한의 전반적인 문예정책은 저자의 논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다.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외국문학은 북한 문학계에서 마이너리티인 데다, 필자의 관심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 문화 자원을 매개로 한 내·외부 간 상호작용에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저자를 따라와 주었으면 한다.

1. 왜 읽는가

80년대에 싹을 틔우다

이유를 묻기 전에 일단 ‘누가, 언제, 어디서’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는 순서일 듯싶다.

한반도에 외국문학이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말부터라 알려져 있다. 1895년에 최초로 『천일야화(당시 제목은 ‘아라비안나이트’)』와 『천로역정』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시작으로 해방 직전까지도 톨스토이, 세르반테스, 도스토옙스키, 셰익스피어, 위고, 코넨 도일 등 유럽인 저자들의 작품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외국문학이 활발하게 유입되었다(김병철 1988). 그러나 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문학계 역시 각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이 언제부터 외국문학을 독자적으로 국내에 들여오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자료와 정보도 턱없이 부족하다. 다만 현재 남한에서 입수 가능한 북한 발(發) 루신 작품집이나 톨스토이 단편집 등의 출간 시점이 1950년대인 것으로 보

아 같은 사회주의 진영 문학 작품들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서구 문학의 경우 셰익스피어 작품집이 예외적으로 50년대부터 출간되었으며, 분단 이전에 이미 세간에 나와 있던 작품들 또한 조선어로의 재번역을 거쳐 그대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하 직함 생략)이 1962년 11월, 대학생들에게 프랑스의 발자크와 위고, 러시아의 푸쉬킨과 톨스토이, 영국의 디킨스를 비롯한 ‘비판적 사실주의²⁾ 작가들’이 쓴 작품들, 특히 『전쟁과 평화』, 『안나카레니나』, 『부활』, 『돛비와 아들』 등을 읽을 것을 권고했다는 기록(정룡진 1991: 272)이 전해진다.

그로부터 30여 년 후인 80년대에는 김정일의 주도 하에 주체문예이론이 확립되고 이에 기반한 작품들과 이론서가 대대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체문예이론이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자기나라 인민과 자기나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방도(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로 정의된다. 김일성이 창시하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주체문예이론을 기본 토대로 문학예술 분야를 총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가 김정일이었던 데는 이견이 없다.

보다 다양한 작품들의 유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북한 내 외국문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의 저자 정룡진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다른 나라 문학작품들을 안겨주기 위한 사업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중략) 특히 1984년 9월에 취하여주시 조치에 의하여 진행되는 100권체계의 세계문학선집 출판사업과 병행하여 진척되었다(1991: 277).”라고 적었다.

2) 19세기 봉건제도와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사실적으로 비판·묘사한 문예사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때의 세계문학선집은 문학예술종합출판사³⁾에서 출간한 북한의 유일 무이한 세계문학전집으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소장 중인 단행본의 출간 연도가 1988년부터 2003년까지⁴⁾인 것으로 보아 80년대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출판사업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된 번역·비평 사업의 결과물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며 현재까지도 일반 교과서에서 인용되고 각종 사전의 문학예술 부문에 등재되어 있다.

외국문학을 읽어도 초점은 내부에

여기서 자연스레 '왜'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주체문예이론의 창시 배경과 내포한 의미로 미루어, 북한에서 문학이 수행하는 역할과 의의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문예이론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시점⁵⁾과 김정일과 그 당이 지난 수십여 년 간 정체되어 있었던 자국 내 외국문학에도 다시금 눈을 돌린 시점(1984년 3월 31일 교시)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체문예이론이 북한의 외국문학 수용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외국문학은 당의 방침에 따라 주제와 내용의 설정이 가능한 조선문학과 달리 타국에서 이미 완성된 지 오래인 데다 전혀 생소한 배경을 취하고 있는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는 이론서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을

3) 1946년 9월 문학예술총동맹 산하의 출판사로 출범하여 이와 관련된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발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외국문학편집부를 두고 있어 별도의 번역권이 배치되어 있다. 1992년 이전에는 문예출판사로 불렸다(전영선 2000).

4) 전권의 배열 순위는 창작연대 순(최길상 1991: 293)이다.

5)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체문예이론은 1967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80년대 대내외적 상황(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가뭄 및 기근)으로 인해 강화, 1990년대에 '주체문학론'으로서 완성되었다(김종희 2005).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조선문학과 겹치는 내용⁶⁾은 배제하고 외국문학만을 놓고 보았을 때, 북한 당국이 인민들에게 외국문학 읽기를 권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자국문학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국문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관해 리기도는 “다른 나라의 우수한 문학유산을 출판보급하고 연구하는것은 우리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게 리용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라는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였고, 정룡진 역시 “주체적문예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론증하기 위해서도 우리의것을 남의것과 대비하여보는것이 필요(1991: 270)”하다고 적었다. 같은 맥락이지만서도 “다른 나라 영웅에 대한 책을 한편 읽어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 나라 영웅과 영웅적현실에 대하여 생각하며 다른 나라 운전자에 대한 작품을 보고도 우리 작가들이 우리 현실이 요구하는 그러한 작품을 어떻게 쓰겠는가를 생각하여야한다(리기도 1996: 215).”는 꽤나 극단적인 서술이 아닐 수 없다.

‘우수한’ 문학유산이라 하였듯이, 북한에서도 외국문학이라도 장점은 인정하고 이를 “허심하게 배울줄도 알아야(리기도 1996: 214)”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국문학에 대한 자부심은 외국문학에 대한 비판에서 일차적으로 비롯되며 불완전한 외국문학을 반면교사 삼아 자국문학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또한 북한 당국의 논리다. 이는 아무리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도 북한의 전문가가 작성한 서평에는 반드시 작품의 문제점⁷⁾ 및 한계에 대한 지적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과도

6) 주로 교훈적 측면에서 겹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학은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며 건전한 사상을 줄뿐아니라 그들을 정서적으로 키우는 수단으로 된다. (중략)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정서를 안겨 주며 그들의 문화성과 인간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리기도 1996: 24).”

7) 실제 본문에서는 ‘부족점(모자라거나 미흡하거나 흠이 되는 점)’이라는 거래말이 사용되었다.

연관된다.

남한에서도 평론가가 작품의 한계를 비판하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장점만 짚고 넘어가는 서평도 많을뿐더러 고전문학의 경우 시대적 특수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반면, 북한의 서평은 문제점 혹은 단점⁸⁾을 너무 대놓고, 그것도 상당히 혹독하게 지적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고전인 『삼국지연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 소설에는 예술적으로도 미숙한 점이 많다. (중략) 소설에서는 또한 아직 서술이 너무 많고 묘사가 매우 약하며 주인공들의 성격발전이 없고 도식화되어있으며 과장과 반복이 많고 지루한 점도 적지 않다.(박태원 1989: 15)” 마치 선생님이 학생의 작문 과제에 대해 적어주는 코멘트와 같은 모양새로, 이러한 서평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여야겠다.”와 같은 당부의 말로 마무리되곤 한다.

둘째, 타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 동시에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기 위함이다.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에는 일정한 시대의 그 나라의 사회제도와 사상,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해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 사실이 반영된다(리기도 1996: 24).”,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은 사람들에게 력사와 문학에 대한 상식을 넓히게 한다(리기도 1996: 19).” 등으로 서술한 데서 이미 북한도 외국문학을 통한 간접경험⁹⁾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회와 문화에 대한 간접경험과는 조금 다른데, 앞서 인용한 말에 함께 따라오는 다음과 같은 서술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설을 읽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현상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고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반동성을 더 잘 알게 되며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우고 (중략) 살기 좋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결심을 가지게 된다(리기도 1996:

8) 이 장에서는 작품 내재적 접근(문체, 표현, 구조 등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에 주목)만을 다룬다.

9) 리기도는 이를 ‘인식교양적가치’라 명명하였다.

12).” 즉, 외국문학을 통해 인민들이 외부 사회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를 확인하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당국의 의도이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소공녀』의 예시를 들며 그 책을 통해 주인공으로 형상화된 당대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북한에서도 그와 같이 단순한 정보를 얻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상식’의 획득은 특히 다양한 곳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은 그 상식에마저도 가치를 투영하곤 하는 사회이다. 주어진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혹은 작가의 창작 의도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일부는 거르고 일부에는 해석을 덧붙이는 취사선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자가 기대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간접경험¹⁰⁾을 차단한다. 북한의 상식에의 가치 투영과 문학에 반영된 타국의 역사·문화 인식에 대해서는 제3장 ‘어떻게 읽는가’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에서 외국문학은 개인의 문학적 흥미 혹은 색다른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체문예이론에 입각하여 실용적이지만 국가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혀 다른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외국문학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가운데에도 초점이 여전히 외부가 아닌 내부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은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봉쇄되어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다른 나라의 모든 문학현상을 철저하게 우리 인민과 우리 혁명, 우리 문학발전의 견지에서 보고 분석평가(1996: 214)”해야 한다고 한 리기도의 한 마디가 이를 다시금 요약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10)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고찰, 인류 보편적 요소에 대한 이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무엇을 읽는가

그렇다면 대체 어떤 외국문학 작품들이 위의 두 가지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서 선정되고 출간되었는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북한에서는 ‘무엇’이 읽히는지를 알아볼 차례다.

세계문학선집 100권을 검토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테지만, 아쉽게도 그 전체 목록은 현재 남한에 전해지고 있지 않다. 대신 대륙별 문학의 발생·발전을 다룬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과 그들의 대표작¹¹⁾을 소개한 『세계의 이름난 작가와 일화』를 통해 북한에서 출간 혹은 중요시되고 있는 외국문학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부분적이지만 여전히 막강한 권위가 있는 세계문학선집 중 입수 가능한 작품 목록 또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11) 단, ‘유명하다’라는 말이 객관적인 것은 아니기에 북한에서 유명하다고 한 작가들이 남한 독자들에게는 꽤나 생소한 경우도 없지 않다. 대표작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로. 그 차이와 간극을 밝히는 것이 이 장의 목표다.

『동물농장』 대신 『미국의 비극』

북한 당국은 모든 외국문학 작품을 엄격히 심사하여 인민들이 읽기에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제한적으로 출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다른 나라 문예서적들 중에서 사상경향이 비교적 좋고 예술적가치가 있는 작품은 번역출판하여 작가들과 일반독자들이 보도록 하며 공개할수 없는것은 대내용으로 번역하여 작가들이 참고로 보게 하는것이 좋습니다.12)”라고 교시(최길상 1991: 292)하였다. ‘공개할 수 없는’ 책, 말하자면 금서가 존재하고, 극소수의 지식인들만이 그것을 읽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천명하였다는 점이 놀랍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작품들이 공개할 만한, 혹은 꼭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어떤 작품들이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을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이때 단순히 출간된 작품을 열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 남한의 것과 북한의 것을 비교하여 겹치거나 겹치지 않는 작품 목록을 찾아내는 가장 단순하고도 필수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남한의 경우 특별한 선정 기준 없이 수많은 외국문학 작품이 폭넓게 유입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계문학’ 혹은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작품들만으로 비교 대상을 제한하였으며, 그 기준을 세계문학전집 목록으로 삼아 21세기 들어13) 발간된 총 12종14)의 세계문학전집 중 6종 이상에 공

12) 최길상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세계문학의 실태를 똑바로 알고 주체적인 우리 문학을 더욱 높은 경지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도록(1991: 292)”이라며 교시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13) 남한의 세계문학전집 출판사업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초가 된 100권 짜리 을유세계문학전집은 1959년부터 발간되었으며, 1970년대까지도 총 6개의 출판사가 전집을 내놓은 바 있다.

14) 일신서적출판사 세계명작100선, 해원세계문학, 문예출판사 세계문학선, 범우 비평판 세계문학선,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시공사 세계문학의숲, 을유 세계문학전집, 열린책들 세계문학, 대산 세계문학총서,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펴권 클래식 세계문학전집, 서울대 선정 세계문학전집.

통적으로 수록된 작품만을 추려내었다.

우선,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총 20개의 세계 문학선집 작품들이 남한의 세계문학전집에도 실려 있는지를 작품별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 세계문학선집 중 일부 목록 및 남한과의 비교

	작품명	작가	국가	겹침 여부 ¹⁵⁾	남한 전집 수 ¹⁶⁾
1	장 크리스토프	로맹 롤랑	프랑스	○	
2	미국의 비극	시어도어 드라이저	미국	×	1/12
3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미국	○	
4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프랑스	○	
5	셰익스피어 희곡선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	○	
6	허영의 시장	윌리엄 새커리	영국	×	2/12
7	메리메, 뒤마 작품선	프로스페르 메리메 알렉상드르 뒤마	프랑스	○	
8	수호전	시내암	중국	○	
9	데카메론	보카치오	이탈리아	○	
10	고골 작품선	니콜라이 고골	러시아	○	
11	실낙원	존 밀턴	영국	×	1/12
12	중국고전시선	두보 외	중국		
13	고요한 돈 강	미하일 솔로호프	러시아	×	1/12
14	근대영국시선	퍼시 비슈 셸리	영국		
15	바이런 시선	조지 고든 바이런	영국		
16	발자크 작품선	오노레 드 발자크	프랑스	○	
17	아이반호	월터 스콧	영국	○	
18	삼국지연의	나관중	중국	○	
19	일리아스	호메로스	그리스	○	
20	신곡	단테	이탈리아	○	

겹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위의 네 작품은 내용이 상당히 어둡고 비극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미국의 비극』은 가난과 종교 때문에 불우하게 성장하여 최후에는 살인자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 즉 제목 그대로 미국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낸 비극을 그렸고, 『허영의 시장』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혼란한 와중에도 상류층의 탐욕과 허영이 난무하여 빈부격차가 극에 달했던 19세기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실낙원』은 아담과 이브의 낙원 추방이라는 성서 이야기를 전체 줄거리로 한다. 『고요한 돈 강』의 주제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이은 러시아 내전의 혼란 속에서 고통받던 카자흐인들의 삶 및 계급투쟁이다. 모두 문학사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¹⁷⁾고는 하나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반면, 북한에서는 세계 100대 명저로 손꼽힌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야말로 ‘허영의 시장’임을 드러내고 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북한이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적었던, 북한에 외국문학이 수용되는 두 번째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어서,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세계문학전집에 빠지지 않고 실려 있는 ‘고전 중의 고전’이나, 북한에서는 작품명은 물론 작가의 이름 또한 세계 작가 인명사전에서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은¹⁸⁾ 작품들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 15) 12종 중 실린 곳이 3종 미만이라는 것은 인지도가 낮거나 중요성이 덜한 것으로 여겨 겹치지 않는 것으로 분류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집에 운문을 포함시키는 일이 드물어 시선(시집)은 겹침 여부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위의 작품들 모두 개별적으로는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 16) 겹침 여부에 ‘X’ 표시를 한 것 외에는 생략하였다. 모두 3종 이상.
- 17) 『고요한 돈 강』의 저자 미하일 솔로호프는 해당 작품으로 196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 18) 『세계의 이름난 작가와 일화』(1)·(2)에서는 지구 전 대륙을 통틀어 250여 명의 작가들이 소개되었다. 그 중에는 남한으로 치면 오웰과 카프카보다 덜 알려져 있는 작가들도 무수히 많다.

[표 2] 북한에서 취급되지 않는 남한 세계문학전집 수록 작품 목록

	작품명	작가	국가	남한 전집 수
1	1984	조지 오웰	영국	9/12
2	동물농장	조지 오웰	영국	9/12
3	말테의 수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오스트리아	7/12
4	변신	프란츠 카프카	체코	7/12
5	성	프란츠 카프카	체코	6/12
6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영국	10/12
7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미국	8/12
8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제임스 조이스	아일랜드	6/12
9	좁은 문	앙드레 지드	프랑스	7/12
10	주홍 글자	너새니얼 호손	미국	8/12
11	채털리 부인의 연인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영국	6/12

교양 있는 한국인이려면 제목만 듣고도 알 만한 작품을 두 개나 남겼음에도 북한에서는 외면받은 두 명의 작가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오웰의 작품들은 흔히 반공소설의 대표주자로 여겨지며 특히 반공주의를 한때 국가적 사명으로 내걸었던 남한에서는 필수 권장 도서로 오래도록 읽혀온 바 있다. 단, 이는 오독에 가까워(안미영 2011) 실제 작품의 핵심은 사회주의 반대가 아닌 극단적인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에 있었고, 작가 스스로도 사회주의를 옹호하여 죽을 때까지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 믿었¹⁹⁾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북한 역시 남한과 비슷한 해석을 한 모양이다. 더욱이 오독하지 않고 핵심을 꿰뚫었다고 한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전체주의에 대한 환멸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배워온 사실들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품들을 1순위로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 <사회주의를 위한 사회주의자 비판>, 《한겨레》 2010년 1월 15일자.

카프카의 경우엔 그가 실존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작가들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실존주의는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자유로운 존재라 보는 입장으로 정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되며, 국가와 사회가 본질적 진리라고 선전하는 것을 의심, 개인이 중시하는 내재적 가치를 긍정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인생이 크게 좌우되고 모두가 사회주의 낙원을 꿈꾸며 삶의 공허함을 느낄 틈도 없이 살 것이 요구되는 북한 사회와 불협화음을 낼 사상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더구나 ‘존재의 불안’이라는 실존주의적 주제를 다룬²⁰⁾ 『말테의 수기』, 카프카만큼이나 실존주의 작가 명단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카뮈의 『이방인』 또한 북한에서 외면²¹⁾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북한의 실존주의 사상 배경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다.

그 외 특별히 북한 당국의 눈에 거슬릴 이유가 없거나 오히려 북한에서 선호되어야 마땅해 보이는 작품들²²⁾을 제외하고 한 데 묶어볼 만한 작품들이 『주홍 글자』와 『채털리 부인의 연인』, 『좁은 문』이다. 북한에서는 문학의 외설적인 장면 묘사 혹은 표현에 제한을 두고 있다. [표 1]에서처럼 엄연히 세계문학선집에 포함되는 데다 남한에서는 음란하다는 언급이 일언반구도 없는 『장 크리스토프』에 대해서도 “작품에는 주인공의 이성관계묘사를 비롯하여 우리의 비위에 맞지 않는 점들이 적지 않(김창호 2002: 9)”다며 비판할 정도이다. 하물며 국제사회에서조차 외설 논란에 흑독하게 시달린 이력²³⁾이 있는 『채털리

20) 민음사 세계문학선집 작품 소개 페이지 참조.

21) 알베르 카뮈는 『세계의 이름난 작가와 일화』 (2)의 부록에 겨우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그마저도 작가와 대표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된 정도이다.

22) 『오만과 편견』이 전자에, 『위대한 개츠비』가 후자에 해당한다. 특히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의 비극』과 동일하게 기성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몰욕과 출세욕이 추구되던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해(전승월 1988: 7)며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23) <‘채털리 부인의 연인’ 외설논란 끝 무죄 선고>, 《한국일보》 2015년 11월 2일자.

부인의 연인』과 중심 소재부터 독자가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해하기 어려운²⁴⁾ 『주홍 글자』는 오죽했겠는가. 『좁은 문』의 경우 앞의 두 작품보다는 ‘건전하고 순수’하다는 평을 받지만, 주인공과 사랑을 나누는 이가 그의 사촌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북한 당국의 윤리적 기준에서 탐탁지 않아 보였던 듯하다.

우리에게 생소한 세네갈 문학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²⁵⁾은 세계문학사 및 문학계 현황을 풀이한 이론서로,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자세하여 남한 독자의 눈에도 문학사를 공부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일 정도다. 이 책은 각 대륙을 시대 · 지역 · 문화권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나오는 ‘아시아편’의 경우 고대아시아문학, 중세아시아문학, 근대 및 현대아시아문학으로 나뉘며 이들은 한 번 더 중국, 인디아, 이란²⁶⁾, 아랍, 동남아시아, 일본이라는 하위 항목으로 나뉜다. 동남아시아가 그 중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점, 일본을 순번 상 마지막에 배치하면서도 모노가타리(物語)와 하이쿠(俳句) 등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문학사적 가치에 대해서도 허심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 등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하지만 보다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아시아 편을 잇는 아프리카 편으로, ‘남한에서 비슷한 서적이 나온들 이렇게 세세하게 아프

24) 과거 저지른 죄에 대한 벌로 주인공의 몸에 새겨진 글자 A는 Adultery(간통)를 뜻한다.

25) 전 2권으로 구성되어 제1권과 제2권이 각각 아시아 · 아프리카 문학과 유럽 · 아메리카 문학을 나누어 다루고 있으나, 제2권은 입수하지 못했다. 다른 북한 관련 서적들이 북한에서는 쿠바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문학 또한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에도 이 책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유다.

26) 근대 및 현대 파트에서는 아랍과 함께 ‘서남아시아’로 통칭된다.

리카 문학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편집부가 심혈을 기울인 표시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아프리카 문학 자체의 역사가 길지 않아 분량은 아시아 편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별로도 구분하여 총 8개국²⁷⁾의 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아프리카 문학에 정성을 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며, 구체적으로는 어떤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는가?

해당 편의 시작 부분에서 집필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아프리카나 라들은 력사가 오래고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의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려는 목적과 지향에 있어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2003: 244).” 즉, 결론부터 말해 북한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한반도와 같이 한때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여 민족문화유산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으나 간고한 투쟁 및 자주성과 적극성에 힘입어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이겨내고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룩(김왕섭 · 황영길 2003: 244)해낸, 일종의 (남한 측 의미에 가까운) 동지나 다름없는 존재이다. 이는 1950년대 중반부터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²⁸⁾해온 북한의 실제 외교 정책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⁹⁾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8개국 중 세네갈 문학이 소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세네갈은 북한이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높이 50m의 거대 동상을 지어주었을 정도로 북한과 친선관계를 유지³⁰⁾해온 서아프리카의

27) 이집트, 알제리, 수단, 나이지리아, 세네갈,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공화국

28)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정치군사분석과 참조.

29) 다만 정치 · 외교적으로는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리라 예상되기에, 여기서는 양국 인민들에게도 쉽게 이해되고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만 최소한으로 논의한다.

30) 세네갈 정부가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과 단기체류 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는 책이 쓰인 당시(2003년)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세네갈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핵 개발 비용 우

공화국으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듯 책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중략) 세네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인용되어 있다. 본격적인 세네갈 문학 소개에 앞서 세네갈을 “서아프리카 대륙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나가는 발전도상나라”라 정의하며 강대국들에 의해 여러 차례 식민지배를 받고 “민족해방투쟁의 결과로 독립을 쟁취”하기까지의 세네갈 현대사를 간략히 서술하기도 한다. 그리고 독립 후에도 세네갈 인민들이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민족경제를 건설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경제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 써왔으며 그것이 민족문화 건설로 이어졌음을 덧붙인다(김왕섭 · 황영길 2003: 307).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³¹⁾

세네갈이 속한 서아프리카 문학의 특징을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문화유산 옹호를 사명으로 한 점으로 꼽으며, 북한 측은 그것을 ‘흑인정신’이라 표현한다. ‘근본에로의 되돌아 가기’와 ‘아프리카’), 《VOA Korea》 2017년 5월 30일자.)

31) 사진 출처는 〈文 안보리 제재 '만수대창작사' 관람...北 제재 무력화에 악용 우려〉, 《중앙일보》 2018년 9월 19일자.

카의 발견'을 추구한 인민들의 정신이 문학에도 녹아들었다는 것이다 (김왕섭 · 황영길 2003: 287).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세계의 이름난 작가와 일화』에도 이름을 올린 우스만 쎬벤³²⁾의 대표작 『열풍』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소개된다. 북한식 서술에 따른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58년 9월 28일, 세네갈 및 다수의 서아프리카 식민지들에서 국민투표³³⁾가 실시된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고 영구화하려는 목적으로 조작한 사기적인 선거제였다. 주인공 ‘판가르³⁴⁾’는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시골 마을의 의사이며, 그의 조수 꼬피는 사회주의자로서 국민투표와 같은 선거로는 사회제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는 인물이다. 그들은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독립에 대한 염원으로 독립투쟁전선에 발을 들이고, 판가르는 선거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의 양심을 찾는다. 반면 판가르가 근무하는 병원의 백인 원장 류크와 의사 기드롬은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들은 독립투쟁전선에 속한 판가르를 병원에서 해고한다. 대망의 선거 날,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온갖 뇌물과 선거반대시위 금지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한다.

세네갈 문학뿐 아니라 아프리카 문학에서 ‘선량한 인민들의 정의감과 식민주의자들의 야심 간의 심각한 대립 구도(김왕섭 · 황

32) 1923년 세네갈 출생, 2007년 사망. 독특하게도 쎬벤은 남한에서는 영화감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장편영화(〈흑인 소녀〉, 1966)를 제작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의 남다른 영화계 행보에 대해 북한 당국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

33) 알제리 전쟁을 배경으로 샤를 드 골의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채택 찬반을 놓고 프랑스 본국과 구 프랑스령 식민지에서 치러진 투표. 이 투표의 가결로 프랑스령 서아프리카가 해체되어 세네갈, 말리, 기니, 니제르 등이 자치공화국으로 독립했다.

34) 해당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을 구하지 못해 이 장 한정으로는 북한식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영길 2003: 317)’는 대부분 이처럼 식민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나는 양상을 보인다. 위의 시각에서 보면 비극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이 나타내는 식민지배 시절의 암울한 풍조 및 해방을 전후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여전히 선호되며, 많은 관심 하에 연구되고 있다. 백인과 흑인, 식민주의자와 독립운동가 사이의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가 조선문학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그것과 매우 유사하여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과 함께 동지애를 불러일으키기 좋고,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과의 강한 연대 또한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어쩌면 북한은 그토록 치열한 독립 운동이 벌여졌음에도 아프리카에서는 끝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못한 반면 자국은 혁명을 이루어냈다는 의미에서 아프리카 문학 출간사업을 통해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고취시키는 효과 또한 거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3. 어떻게 읽는가

[표 1]은 북한 당국의 방침에 의해 의도적으로 남한과 겹치지 않게 된 작품들도 있지만 겹치는 작품들 또한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장에서는 겹치는 작품들 곧 북한에서 특별히 배제되거나 선호되지도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널리 읽히는 작품들이 북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 장의 핵심 연구 대상은 개별 문학 작품의 서문이다. 북한의 문학 단행본 서문은 단순히 본문을 읽기에 앞서 참고 겸 훑는 작가 소개 글 및 추천사 따위가 아니라 문학 평론에 가깝다. 10-15쪽 가량의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주요 인물 및 배경 소개를 시작으로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와 의의 그리고 1장에서 예로 들었던 바와 같이 작품의 흠결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라면 ‘옮긴이의 말’ 또는 ‘작가 후기’ 등으로 책 말미에 자리 하거나 아예 생략되어도 무방할 내용이 작품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때 북한 문학계에서 평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체문학의 새 경지』의 저자 최길상은 “우리 문학평론은 개인의 주관적이며 제한적인 사상미학적견해가 로출되어 작품을 그릇되게 평가하던 근본약점을 극복하게 되었으며 확고한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작품을 평가함으로써 인민대중들에게 작품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이해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평론은 당의 문예정책의 철저한 옹호자(1991: 269-271)”라고 적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이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고한 기준에 따라 모범적인 감상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평론의 역할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외국문학 단행본은 평론을 책의 서문에 배치함으로써 책을 읽기에 앞서 작품에 대한 모든 것, 심지어 작품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까지 습득한 뒤 평론에서 미리 알려준 바를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본문을 읽도록 독자들을 유도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답은 정해져 있다

북한 전문가들³⁵⁾의 문학 평론(이하 ‘서평’)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어느 시대에, 어느 국적을 지닌 작가가 어떤 배경을 설정하여 창작한 작품이건 간에 특히 단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선 서평 내용이 늘 한결같다는 점이다. 마치 작품을 감상하기도 전에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견고한 정답이 주어져 있어, 원하는 정답이 나오지 않거나 정답과 무관한 내용이 전개될 경우 곧바로 작품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모양새다.

35) 북한에서는 외국문학의 번역가와 평론가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수 혹은 부교수라는 직함이 붙는 각 국가·언어별 문학의 전문가들이 세계문학선집을 비롯해 거의 모든 외국문학 단행본의 번역·비평, 심지어 출간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두 작품에 대한 서평이 적당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이 소설에서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사이, 봉건적착취계급과 농노들 사이의 심각한 모순과 갈등을 화해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중략) 작가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근본적으로 적대되는 모순을 외면하고 그들의 관계를 오히려 미화하고있고, 봉건왕을 리상화하고 반동적 충군사상도 설교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봉건령주, 기사, 승려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죄행을 폭로한 반면에 리차드왕은 용감하고 정의로우며 선정을 베푸는 인물로 그리고있다. (중략) <의적단>의 농민들도 왕에게 충성다하는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봉건적 충군사상을 긍정하고있다.

- 『아이반호』³⁶⁾ 서문 5-6쪽

소설의 제한성은 우선 송강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적충군사상을 강하게 드러내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작가는 또한 농민봉기를 계급적립장에서 옳게 그리지못하고 많은 측면들을 외곡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는 봉기군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농민 등 하층인민출신의 봉기자들은 줄개들로서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것으로 그린것 ... (후략)

- 『수호전』³⁷⁾ 서문 8-9쪽

현대의 여느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복한 역시 증세 봉건적 요소와 왕정 제도 그리고 유교적 윤리 및 전통을 극복해야 할 구시대적인 것

36) 작가는 스코틀랜드의 국민작가 월터 스콧 경. '사자왕' 리처드 1세(Ricahrd the Lionheart)와 로빈 후드 등 서구권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며, 당시 잉글랜드를 지배하던 노르만족과 지배받던 앵글로색슨족 간의 충돌이 이야기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37) 『삼국지연의』, 『서유기』, 『금병매』와 함께 중국 4대 기서로 꼽히는 작품. 북송 휘종 치세 시절, 무능한 황제의 폭정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108호걸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것이 줄거리이다.

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한에서는 내용이 봉건적 성격을 띠고 인물들이 봉건적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고전문학 작품들마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고전 역사 소설이 ‘봉건충군사상’이 긍정 혹은 강조되었다는 이유로 그 핵심 주제부터 비판을 면치 못했다. 북한 당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상 및 사회적 풍조에 대한 부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품에서 인물 혹은 집단 간의 대립이 그려질 경우 이를 무조건적으로 투쟁의 전조로 보고 “근본적 모순이 내포된 계급갈등”으로 승화시키는 사회주의적 시각 또한 두드러진다. 작가의 주제의식이 나 당대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고려 없이 하층 인민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등 “계급갈등이 옳게 그려지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것을 작품 자체의 한계라 단언하고 있다.

『수호전』만큼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진 않으나 자본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앞서 살펴보았듯 북한에서 호평을 받는 『미국의 비극』과 『허영의 시장』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한계점이 지적된다. “자본주의사회가 썩고 병들었다는것을 보여 주고 그것을 부정하는 립장에서 서면서도 사회적불행의 근원이 사회제도자체의 모순에 있다는것과 투쟁에 의해서만 그것을 없앨수 있다는 혁명적인 사상을 심어 주지 못했다(고근화 2001: 8)”는 것이다. 잘못된 현상을 비판하되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염세주의나 회의주의, 혹은 화해 · 회개와 같은 도덕적 · 종교적 해결책으로 이어진다면 옳지 못한 것³⁸⁾이라는, 북한 측의 다소 이분법적인 시각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단순히 작품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혹은 비판적으로 그려냈는지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그 사회와 당대 사람들의 문화 및 사고방식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실패한 것으로 사료된다.

38) 이를 북한의 전문가들은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일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제한성(한유정 2001: 8)”이라 표현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서평들을 서두에 배치하여 마치 고정불변한 답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주인공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존재

문학은 현실 세계에서 만나보거나 만나보지 못한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향연을 펼치는 무대와도 같다. 외국문학의 경우 다양성의 폭은 더욱 넓어지기 마련이며, 독자는 작가의 인물 배치 방식과 그들에게 부여한 결말을 따라감으로써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넓게는 인간의 삶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얻게 된다. 어려서는 선인이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 구조를 당연시하다가도 점차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각도에서 공감 혹은 비판하며 인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미 여러 문화권에서³⁹⁾ 자연스러운 성장의 흐름처럼 여겨지고 있다.

명실공히 인류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셰익스피어의 희곡들도 찬찬히 따져보면 권선징악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최용훈 2015: 75) 작품이 다수를 이루나, 오늘날 남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작품 속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재인식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베니스의 상인』 속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였던 샤일록은 당시 극심했던 반유대주의에 의한 피해자로서 옹호, 선한 기독교인이었던 주인공 집단은 절차적 정의를 거스르고 한 개인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은 가해자로 비판받게 된 것⁴⁰⁾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39) 물론 정형화된 인물상을 추구하며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것은 비단 북한만은 아니며,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 적대시하는 외부 세력이 명확한 국가·집단이 특히 이러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남한만 돌아보아도, 유독 일본을 대할 때엔 여전히 이분법적 시각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0) <샤일록은 왜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려 했는가>, 《오마이뉴스》 2014년 5월 13일자.

동일한 작품의 인물들과 권선징악적 결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부정인물인 샤일록은 자본주의시초축적시기의 부르주아지의 잔인성과 약탈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체현하고있는 인물이다. 샤일록의 비인간적인 야수성, 잔인성은 하인과 딸자식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중략) 작품에서는 간악한 샤일록의 형상에 대치하여 <선량하고 너그러운> 상인 안토니오의 성격이 창조되고있다. 안토니오는 우정을 귀중히 여기며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리자를 받지 않으며 친구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행동한다.

- 『셰익스피어 희곡선』 (2) 서문 3-4쪽

여기까지만 보아도 타국에서는 탈피하고자 하는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작가의 본래 의도 이상으로 심히 강조하고 양측의 대조적인 결말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한식 평론의 방향성을 더 뚜렷이 나타내주는 대목은 다음에 나온다.

작품은 샤일록과 같은 부르주아지의 성격의 부정면을 폭로하면서 그것을 사회제도와 결부시켜 보여주지 못하고있다. 작가는 다같이 돈많은 자본가계급인 안토니오와 샤일록을 서로 대치되는 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선하고 악하게 되는것이 사회제도의 성격과 아무런 상관없이 없는것으로 만들어놓았다. (중략) 이것은 작가가 샤일록의 성격 속에 구현되어있는 악이 자본주의적관계의 필연적산물이며 다가오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라는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 『셰익스피어 희곡선』 (2) 서문 4쪽

감히 단언하건대, 북한의 평론가들이 외국문학 작품 속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관습과 근본적으로 다

르다. 인물이 어떤 시대에 어떤 계급에 속해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만 있어도 그의 선악이 충분히 규정될 수 있으므로, 누가 선한 품성을 지녔고 누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냐는 등의 개인적 측면은 그다지 중요한 이야깃거리가 못 된다. 이는 앞서 논의한 대로 북한에서 문학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사회적 차원의 답이 올바른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곳으로, 그에 따라 작품 속 인물들 또한 주어진 답에 따라 형상화되고 알맞은 결말을 맞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분석된다. 이러한 시각은 보다 선악이 혼재하는 인물 군상이 등장하는 셰익스피어 비극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이 아예 처음부터 돈벌이를 위해 기본 윤리를 때론 외면하기도 하는 ‘자본주의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내세워졌을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무서운 의지력을 발휘하는, 향락에 저촉되는 모든것을 무시하며 짓밟아버리는 무뢰한(박시환 1999: 13)”이라는 과격한 표현과 함께 비판이 가해짐으로써 그들의 논리는 완성된다.

문학 작품 속 인물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그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배경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인간이 본래 사회적 존재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특정 계급 및 생활방식을 영유하는 이들의 전형성이 강조되어 각각의 인물들에 지나치게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고 모두가 권선징악적 구조에 편입된 나머지, 개인의 다양성과 특수성, 역동성까지 가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채로운 인물 군상의 향연인 외국문학도 북한에서는 그들의 정답을 증명하는 수많은 예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읽는다’였는가 ‘읽어야 한다’였는가

지금까지 북한의 외국문학 수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북한은 무슨 목적으로 외국문학을 수용하며, 그 목적에 합당케 하기 위해 어떤 외국문학 작품들을 수용 혹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만이 아닌 세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외국문학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문학을 번역·출간하기 시작한 것은 타국에서처럼 인민들이 외국문학 그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고 자국 문학을 넘어선 다양한 작품들을 접함으로써 내면의 수양과 함께 세상을 보는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외국문학은 조선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주체문예 이론에 입각하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실제로 출간할 작품 목록을 선정하는 가운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외부 사회의 비참한 현실이 묘사된 작품은 명백히 선호되는 반면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등 당국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작품은 의도적으로 배제되

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국가 정서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특정 지역의 문학 전반이 유독 중요시되는 모습 또한 보였다. 본문이 왜곡되지 않는 한 비슷하게 읽힐 수밖에 없으리라 예상되었던 작품들마저도 서문에 전문가 평론을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자국 방침을 수호하고 그것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읽을 것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문학 작품들에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건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작품 속 인물 개개인의 독특한 인물 형상보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마땅한 결말을 당연시하는, 결과론적이고도 일관적인 해석이 덧붙여졌다.

문학, 특히 외국문학이라는 장르가 여타 매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는 수용자 측에서 제작되어 연출하고자 하는 대로 얼마든지 창작 및 변형이 가능한 반면, 후자는 타지에서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어 들어온 것으로서 외부 사회에서 실제로 살았던 이가 그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똑같은 본문을 읽는 이상’, 외국문학을 통해 최소한의 간접경험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고 인민들 또한 조선문학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본 연구를 시작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이, 앞서 적었던 대로 북한 당국도 상식 차원에서 간접경험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외국문학만이 지닌 역할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작품과 그 본문이라고 해도 이에 덧붙여진 북한의 사회주의적·국가주의적인 프레임은 너무나 강력했고, 외국문학은 처음부터 밝힌 두 가지 수용 목적이 놀라울 정도로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어디까지나 당국의 질은 그림자 속에서 제한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간접경험의 장으로서,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창으로서 기능해야 마땅할 외국문학이 오히려 ‘북한’이라는 거대한 창틀 속에 가둬져 있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을 품어봄직한 부분은, 여전히 실제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읽고 있는지에 대해 저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당국이 아무리 사회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외치고 외국문학을 ‘주체적’으로 읽을 것을 강조한다고 한들, 정작 독자들은 이론서나 서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본문부터 읽으며 가보지 못한 사회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평론가가 아무리 부정적인 주인공을 신랄하게 비판한들, 독자는 이미 소설에 푹 빠져 자신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과 동일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책을 직접 집어 들고 밤새워 읽을 사람은 지도층이나 선전부가 아닌, 남한의 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 인민들이기에.

결국 이 책의 내용은 왜, 무엇을, 어떻게 ‘읽는지’가 아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한 셈이다. 저자도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북한 서적을 읽고 거기 적힌 북한 당국과 문학계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나, 그 중 어디에도 인민 독자들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야 깨닫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문학을 통해 북한을 읽고자 했던 저자의 시도가 아예 무의미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날 것 그대로의 외부와 연결된 몇 안 되는 합법적 통로인 외국문학이 북한이라는, 아직도 개방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 하나였다는 데는 한 치의 의심도 없으며, 비록 본 연구는 실제에 완벽히 도달하진 못했으나 향후 이어질 인류학적 시도들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저 언젠가는 직접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질문하며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북한 저서

김왕섭 · 황영길, 2003,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 (1): 아시아 · 아프리카편, 문학예술출판사.

드라이저, 시어더 (고근화 역), 2001, 『미국의 비극』,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라관중 (박태원 역), 1989, 『삼국연의』, 문예출판사.

롤랑, 로맹 (김창호 역), 2002, 『장 크리스토프』, 문학예술출판사.

리기도, 1996,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리기원 외, 2007, 『세계의 이름난 작가와 일화』 (1), 백과사전출판사.

리문성, 2002, 『세계의 이름난 작가와 일화』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밋첼, 마거레트 (박시환 역), 1999,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셱스피어, 윌리엄 (림학수 역), 1991, 『셱스피어 희곡선』 (2), 문예출판사.

스코트, 월터 (박정원 역), 1991, 『아이반호』, 문예출판사.

시내암 (백준선 역), 1992, 『수호전』,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정룡진, 1991, 『아동문학의 새로운 발전』, 문예출판사.

최길상, 1991, 『주체문학의 새 경지』, 문예출판사.

■ 남한 저서

김병철, 1988,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상·하, 을유문화사.

최용훈, 2015, 『셰익스피어 인문학』, 페르소나.

학위논문 및 간행물

김종희, 2005,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문학의 방향성”, 『한국문학논총』 39(8).

안미영, 2012, “해방이후 전체주의와 조지 오웰 소설의 오독”, 『민족문학사연구』 49(0), 민족문학사학회.

전승월, 1988, “The Great Gatsby에 나타난 Gatsby의 비극성”,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영선, 2000, “북한의 출판보도체제와 내용 연구”, 『출판잡지연구』 (8).

최경희 · 홍유미, 2001, “북한의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비평과 번역본 점검을 중심으로”, 『안과박』 11.

기사

김성호, 〈샤일룩은 왜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려 했는가〉, 《오마이뉴스》, 2014.5.13.

이철행, 〈우리는 왜 지금도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할까?〉, 《대학신문》, 2016.4.10.

인현우, 〈북한과 오랜 끈 놓지 못하는 아프리카 국가들〉, 《한국일보》, 2017.12.10.

함지하, 〈세네갈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핵 개발 비용 우려”〉, 《VOA Korea》, 2017.5.30.

허미경, 〈세계문학전집 ‘제2의 전성기’〉, 《한겨레》, 2010.1.11.

_____ 〈사회주의를 위한 사회주의자 비판〉, 《한겨레》, 2017.5.30.

참조링크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작품 소개 페이지
<http://minumsa.minumsa.com/book/677/>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북한에 갇힌 외국문학

발행 | 2018년 12월 7일

저자 | 이수진

펴낸이 | 정향진

펴낸곳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전화 | 1670-8316

이메일 | social@snu.ac.kr

ISBN | 979-11-5811-000-0

© 이수진 2018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